

1.2만곳 협력사 품었다… 농어촌공사, 인권경영 ‘대상’

맞춤형 인권경영 전략 추진
협력사 행동규범 마련하고
ESG·인권경영 교육 등 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회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공급망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인권경영 체계와 성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농어촌공사는 각 협력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았다. 공사의 협력사 1만 2000여 곳 중 93%가 중소기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지를 둔 곳이 79%에 달한다. 또 전체 계약 가운데 건설공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인권경영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했다. ▲협력사 인권경영 역량 강화 ▲현장 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약근로자 인권·안전 보호 ▲정보격차 해소 소통창구 운영이다.

우선 협력사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기준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RC(한국농어촌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의 제정이 기준점이 됐다. 협력사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 윤리, 환경, 안전 등

20개 항목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부터 이행까지 계약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인권경영 교육’도 실시해 지난해 285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현장 취약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공사는 단일 작업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위험요인과 교육사항을 분석해 제공하는 ‘오늘의 위험’ 앱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익명 신고하면 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세이프 리본’ 앱도 개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안전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사고지대를 줄이고 있다. 교육에는 최근 3년간 120명이 참여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사칭범죄 예방을 위해 ‘사칭 보이콧피싱 예방센터’를 구축했

다. 협력사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전담직원이 인사기록을 대조해 30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이를 통해 62건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밖에 KT, 대한노인회와 함께 IT 서포터스를 운영하며 농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사 인권경영 역량 강화와 현장 근로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며 공급망 전반의 인권경영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임직원을 넘어 1만2000여 협력사와 현장 근로자, 지역주민까지 인권경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공급망과 농어촌 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KAI, 협력사와 품질 경쟁력 강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협력사와 함께 항공기 생산 전반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AI는 지난 2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2026년 KAI-협력사 품질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KAI는 이날 올해 품질 전략으로 ▲예방품질 강화 ▲전문인력 양성 ▲품질검사 제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KAI



벤처협·INKE·서울과기대, 인재 양성 맞손

벤처기업협회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진행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왼쪽 5번째부터) 김동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기도 INKE 총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고려아연, 울산 재난 대응에 2.3억 전달

온산제련소,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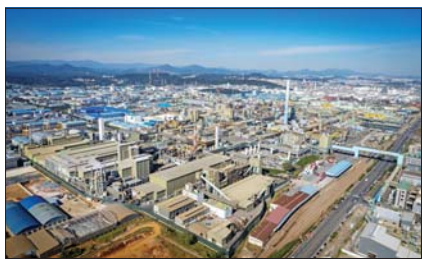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울산광역시에 ‘재난·재해 선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전달은 재난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구호물품 등을 갖춰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금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5개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현장 기동형 지원 인프라 구축과 긴급구조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물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재난 발생 후 복구 지원’에서 ‘재난 발생 전 선제적 대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웅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지원 본부장은 “재난과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지난해에도 산불·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바 있다. 특히 제련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군의 단수 피해 주민들에게 생수 4만 병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 함께 걷고 달리며 장애 인식 개선

내달 9일 ‘슈퍼블루 마라톤’ 개최
10일까지 8000명 선착순 모집

롯데는 다음달 9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제11회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장애인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운동과 끈을 착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달리는 행사다. 참가자는 오는 10일까지 8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슈퍼블루 걷기(1.6km)와 슈퍼블루 5km,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5km와 10km 등 4개 코스로 운영된다. 장애인은 본인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롯데는 스포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2013년부터 장애 관련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을 위한 ‘블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블루(BLUE)’는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의 약자로 ‘아름다운

말은 올림이 됩니다’라는 의미다.

롯데는 캠페인의 취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 매년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는 약 8만명이다.

롯데 계열사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롯데월드 캐릭터 로티와 로리가 공연을 진행하고 롯데월드푸드와 롯데칠성음료는 간식과 음료를 지원한다.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링 버스, 캐논코리아는 포토존 이벤트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SOK 앙상블’ 공연도 진행된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함께 훈련하고 교류하는 ‘슈퍼블루 러닝 클래스’도 운영한다.

올해는 대회 개최일인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장애인에게 바른 말을 전해요’를 주요 메시지로 정했다. 행사를 통해 장애 관련 올바른 언어 표현과 장애 인식 개선의 의미를 알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S전선, 동해 취업계층에 1억 지원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 취업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이어나간다.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해시 취업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정학 동해시장(왼쪽), 최원용 LS전선 동해인사 노경충무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한수원, 성평등 문화 공로… 장관 표창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평등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동안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과제 발굴·이행 ▲여성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적 진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한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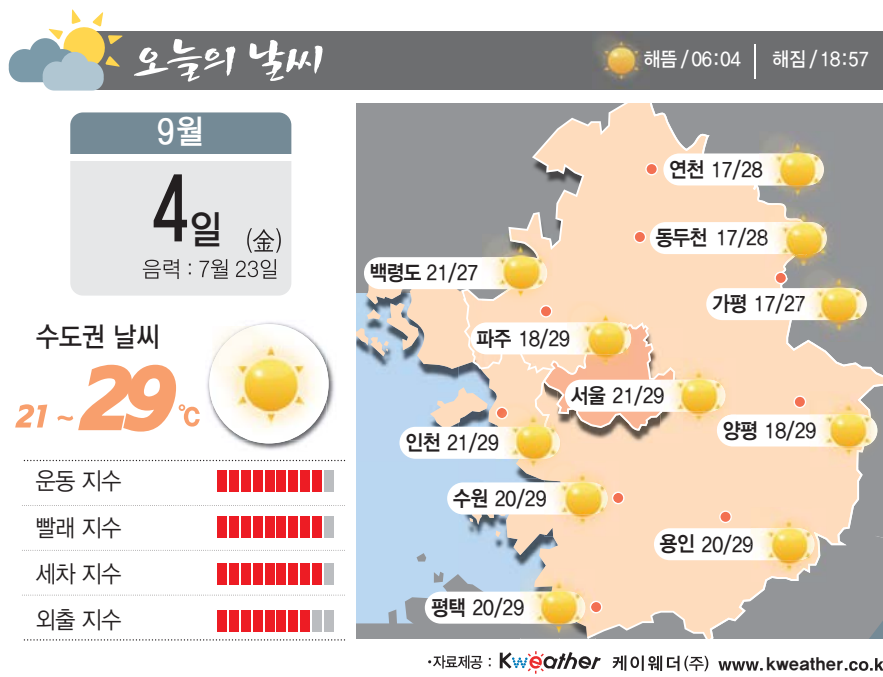
유태선씨, 화재 막아 ‘와우 히어로’ 선정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배송 중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쿠팡친구 유태선씨를 ‘와우 히어로’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강변북로 하남 방면을 주행하던 중 앞차가던 차량 엔진룸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쿠팡친구 유태선 씨(왼쪽), 홍용준 CLS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부음 ▲송만배(전 제천문화원장)씨 별세=2일 오후 7시, 발인 4일 오전 7시, 제천명지병원 장례식장 1특 분향실. 043-651-4440
▲윤성희씨 별세, 윤기영(인스포코리아 대

표)씨 부친상 = 건국대학교충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김은희씨 별세, 정현(가운전선 대표이사)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5일 오전. 02-2258-5922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신청사 개청

현장 중심 노동복지 서비스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인천 남동구에 경인지역본부 신청사를 개청했다. 현장 중심의 노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다. 공단은 3일 개청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업무공간 이전을 넘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노동복지 수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을 확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4372㎡(4350평) 규모다. 경인지역본부 9개 부서를 비롯해 경인지역을 총괄하는 소음성난청전담TF와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함께 입주해 총 31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특히, 소음성난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도 개선했다.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고객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 고객 상담실을 확대·개편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경인남부업무상징 병관청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한 데 이어 이번 경인지역본부 신청사에 전문조직을 함께 배치했다. 이처럼 경인지역의 노동복지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향후 증가하는 업무상징병과 다양한 노동복지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공단 임직원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인지역본부 직원들은 직접 선정한 “새로운 공간, 더 큰 신뢰,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다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